

'제96회 춘향제' 7일간 대장정 마무리

남원시, 한복 퍼포먼스·폐막 공연·불꽃쇼 등 폐막식 끝으로 잊지 못할 감동 선사

남원 제96회 춘향제가 5월 6일 광한루원 특설무대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7일간의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폐막식은 시민과 관광객 등 5,000여 명과 한복 퍼포먼스, 폐막 공연, 불꽃쇼 순으로 진행되며 춘향제의 마지막 밤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올해 춘향제는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를 주제로 전통과 현대, 세계와 지역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100회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과 확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남원시장이 '춘향 판을 열다'를 주제로 춘향제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 대표 전통축제를 넘어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문화축제로의 도약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한복 퍼포먼스에서는 한복디자이너 김혜순 명장과 제40회부터 제94회까지의 역대 춘향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춘향이 지닌 아름다움과 품격, 우리 전통의 멋을 감각적으로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역대 춘향들이 객석으로 직접 들어가 관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호흡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현장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남원 제96회 춘향제가 5월 6일 광한루원 특설무대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7일간의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최경식 시장이 기념식에서 춘향제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남원시청 제공)

폐막 공연에는 가수 백지영, 김준수, 두번째 달 등이 출연해 축제의 마지막 밤을 화려하게 장식했으며, 행사 마지막에는 광한루원 발하늘

을 수놓은 대형 불꽃쇼가 펼쳐져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5월 가정의달 SNS 인증 이벤트 진행

익산시,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실외놀이 체험시설 인증하면 롤글라이더 반값

익산시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왕궁보석테마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익산시는 5월 한 달간 주말과 공휴일에 왕궁보석테마관광지 가족공원 일원에서 실외놀이 체험시설 인증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족공원에 조성된 실외놀이 체험시설 △롤글라이더 △미로체험공간 △하늘

등등 체험로를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 기간 미로체험공간과 하늘등등 체험로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뒤 매표소 직원에게 화면을 제시하면 롤글라이더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시설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50



분 간격으로 하루 총 6회 시설을 운영한다. 또한 긴급 상황에 대비한 반복 안전교육과 전문가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익산=이재춘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국악교육 프로그램 '청출어람' 운영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에서는 국악교육 프로그램 '청출어람'을 운영하고 있다.

1991년 '국악문화학교'로 시작한 국립민속국악원의 국악교육 사업은 현재 '일반인 국악강좌'와 '청출어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약 7,000명이 수강한 대표 교육 프로그램이며, 수강생들은 판소리, 국악기 연주 등 각자의 관심과 수준에 맞는 과정을 선택해 전문예술에 대

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특히 최근 과정에서는 소리북 만들기 체험을 새롭게 운영해 국악교육의 폭을 넓혔으며, 수강생들은 소리북을 만들며 악기의 구조와 소리의 원리를 이해하고, 기존 교육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국악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북 지역 수강생뿐 아니라 경기, 전남, 경남 등 타 지역에서 참여한 수



강생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8부 '굿패와 사랑' (6)

보고 싶겠군요?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피리와 장구 등 악기를 잘 다루고 마을 사람들에게 흥을 돋우어주는 남준은 마을에서도 특별한 존재였다.

"수녀님....."

어느 날 남준은 루이지와 이런저런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어려운 말을 꺼내려는 듯 뜬금없이 루이지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서 말해보라고 눈으로 말했다.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어머, 그래요?"

루이지는 남준이 애인이라도 생겼다는 말을 들은 것처럼 반가워했다. 남준은 루이지에게 명희와의 그동안의 인연을 이야기했다. 루이지는 남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이야기인양 흥분하면서 흥미로운 얼굴을 했다. 슬픈 표정을 지었다가 했다.

"보고 싶겠군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남준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만약 살아 있다면 아마 지금쯤 무당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눈 때문에 앓은 무당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앓은 무당이라면..... 그리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찾아보면 금방 찾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한번 찾아볼까요?" 남준은 고개를 떨어뜨리며 머리를 저었다.

"그냥..... 수녀님께 옛날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루이지는 남준의 표정과 몸짓, 말투에서 그녀를 그리워하는 느낌을 받았다. 남준은 그러나 루이지에게 남준이 좋아했던 여자가 이름이 명희라는 건 밝히지 않았다. 루이지는 몇번 여자 이름을 물었지만 남준은 루이지에게 관한 부담을 준 것 같아 말하지 않았다.

마을 밖으로 나가면 루이지는 사람들에게 앓은 무당 중에 맹인 무당이 있는지 물었는데, 너무 막연해서 사람들은 딱 꼬집어서 누구라고 말하지 못했다.

남준은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마을에서 키우는 닭이 낳은 달걀을 시장에 내거나 다른 마을에 전할 때 이동할 수 있었다.

나환지촌에서 생산된 달걀을 다른 마을 사람들이 나환지를 직접 대면하면서 구매하거나 시장에서 역시 얼굴을 보면서 사는 경우는 없었다. 중간상인을 통해 밖으로



생상형 시로 제작된 이미지

나갔는데 그들은 시중보다 싼값으로 달걀을 수매해 갔다.

남준은 중간상인에게 판매된 달걀을 실어다 주거나 옮겨 주는데 힘을 보태면서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하루는 중간상인을 통해 판매된 달걀을 부안면 용산리로 가져다줄 일이 있었다. 중간상인에게 용산리로 가져다준다는 말을 들은 뒤 여러 상성과 같듯이 남준을 괴롭혔다.

용산리 연기마을은 명희의 외가가 있었다. 남준과 명희는 황전마을의 참상을 목격한 뒤 연기마을로 숨어들기로 했다. 도중에 박대우 일행에게 잡혀 산 생활을 했고 남준은 쫓겨나듯 명희와 헤어졌다.

명희는 산에 남았는데 지금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녀가 살아 있다면 어디로 가겠는가. 당연히 외할머니가 계신 용산리로 갔을 것이다. 그곳에 머문다면 명희는 맹인 무당이 되었을 것이다. 용산리는 남준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장소였다.

달구지로 달걀을 싣고 가다가 우연히 만난 젊은 여자에게 맹인무당을 물었다. 여자는 놀란 눈을 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선 뒤 잘 모르겠다고 손을 내지으며 도망가듯 가버렸다.

배달 장소에 도착해 달걀을 내리면서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맹인무당을 물었다. 할머니는 측은한 눈으로 남준을 본 뒤 굿을 하려고 그러냐고 물으면서 영험하고 굿을 잘 하는 무당이 연기마을에 있다고 말했다.

명희의 나이와 생김새를 말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생김새가 맞다고 했다. 가슴이 뭉클하면서 지도 모르게 눈물이 솟고 말았다. 박명희가 살아 있었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